

第60回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 運營委員會會議錄

第2號

城北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7年5月15日(水) 午前11時

場 所 第2小會議室

議事日程

1. 第61回臨時會議事日程協議의件

審査된案件

1. 第61回臨時會議事日程協議의件(議長 提議) 1面

(11時04分 開議)

○委員長 高允根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성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6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第61回臨時會議事日程協議의件(議長 提議)

○委員長 高允根 의사일정 제1항 제6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건을 상정합니다. 성북구의회회의규칙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6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회기는 5월 23일부터 5월 30일까지 8일간이며 본 임시회 기간중 처리해야 할 안건은 의원 발의 3건의 성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결산감사위원 선임의건과 의원윤리특별위원회위원선임협의의건이고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한 건이며 김남섭씨가 고운근 의원의 소개로 제출한 청원 1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文京周委員 문경주위원입니다. 우리 의안정우를 보면은 몇가지 의안이 안되는데 이

중간에 보면은 일요일이 끼어 있습니다. 중간에 일요일을 이렇게 끼어넣어야할 부득이한 그런 사정이 있는지 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죠.

○委員長 高允根 동료위원들이 다 아시는 사항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저도 가부 투표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 위원님들의 인격 문제인데 동료위원들 중에서는 회기 일정이 이렇게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어서 우리가 80일 회기 일정에 그것을 채워서 해야 되지않느냐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지난번에 임시회의때도 보게 되면은 꼭 거기에 연연해서 되겠느냐 이런 동료 위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로는 다수 위원님들이 이런 방향으로 일정을 짜는 것을 바라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동료위원님들 일일이 의사를 물어보기는 대단히 이상스럽고 그래서 이런식으로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李龍雙委員 그 날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끼워 맞추기다, 아니면은 하루에 할 수 있는 것을 80일을 우리가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 인상이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고 또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이것을 하고 있는데 다소 80일을 못 채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 한건 처리 몇 건도 안되는데 본회의에서 하루 이를 삼일씩 나흘씩 이것을 만들고 상임위원회 할 것도 없다는데 이것을 일주일씩 열흘씩 바쁜데 이것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을 타이트하게 3일이면은 3일, 4일씩 이렇게 만들어서 그 기간내에 완전히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은 좋겠습니다.

○委員長 高允根 문경주위원님, 다시 하십시오.

○文京周委員 저도 이용섭위원의 발의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지난번에 사실 저희들이 모르고 있던 부분을 임시회의때 지적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희들이 스스로 몰랐던 부분을 알게 인지했으면은 그때부터라도 시정해 나가고 개선해 나가는 의회 운영의 묘가 살려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이 일정을 다시 재조정을 해서 의안있는 그런 일자에 맞춰서 조정을 했으면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李龍斐委員 한가지만 더 첨부을 한다면은 식사문제도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식사문제도 우리가 개선을 해야지않느냐 하는 것 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高允根 문경주위원님과 이용섭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진지하게 토론을 한번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저 위원장으로서도 이 문제는 과거에 우리가 내려오는 형식이 없기 때문에 저로서도 상당히 노심초사했고 이 문제를 지난번에도 말씀이 나와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문제도 아주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오늘 우리 의회사무국에다가 물어보니까 앞으로 정기회의를 빼고 며칠정도 남느냐 물어보니까 25일, 이번 임시회의를 빼고 나서 25일이 남는답니다. 우리 회기 80일 회기에서, 정기회를 빼고 나서, 그러면은 7,8월에 혹서기이기 때문에 대부분 임시회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사님하고도 조금전에 상의를 했습니다만은 25일간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또 활용을 안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것이 대다수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의사가 아주 잘 반영되고 꼭 회기 일정을 채워야 되느냐, 안채워도 되느냐, 이런 문제도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우리 운

영위원회에서 오늘 확실히 집고 넘어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다른 동료 위원님들의 말씀 계시면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면은, 반대토론이란듣가 이 시간에 말씀을 해 주세요.

○金榮植委員 네. 위원장님,

○委員長 高允根 김영식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金榮植委員 회의중에 이것을 하지말고 한 10분간 쉬어 가지고 간담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했으면은 싶은데요. 그래도 되지않을까요?

○委員長 高允根 어떻겠습니까? 찬성입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은 약 10분동안 간담회를 하기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時12分 停會)

(11時45分 續開)

○委員長 高允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회의 일정문제로 인하여 간담회에서 좋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이 문제를 깊이 느끼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의사일정을 생산적으로 우리 구민을 위한 다시 말하자면은 짜 맞추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 안보이고 내실있는 의사일정을 잡아서 우리 성북구 50구민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고 의정활동을 잘한다는 말을 듣게끔 의사일정을 짜는 것으로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문제만큼은 아주 명확하게 내실있게 짜기로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임시회의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더이상 토론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의가 없으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음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47分 散會)

○出席委員 10人

高允根 李承魯 崔桂洛

金榮植	朴景錫	金甲濟
徐榮振	許東翼	文京周
李龍燮		

○缺席委員 5人

金南孝	金壽榮	宋夏星
李大一	崔東煥	

○參席專門委員

專門委員	崔石根
------	-----